

2021년 총평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사업목표를 “조직 운영 및 활동의 정상화”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지표인 회원 350명으로 확대, 온라인 소통 공간 활성화 등을 살펴보면 매우 미흡하다. 회원은 오히려 줄었고, 홈페이지는 새롭게 개설했으나 활용도가 낮다. 그러나 형산강건기와 생태탐방을 다시 시작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탈핵사업은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폭로하고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사무국장이 현안소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활발한 조사활동을 통해 방사능 누출의 진상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 또한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기록한 백서 ‘핵발전소, 이제 그만!’을 출판했다. 백서 출판에 힘입어, 지역주민과 함께 해온 끈질긴 탈핵운동과 월성1호기 폐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백서 출판 및 환경상 수상을 기념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많은 회원과 후원인의 참여 속에 개최했다. 회원 감소 등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둘러싼 시민운동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상 대상 수상을 계기로 회원들과 운동을 혁신하고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가야 한다.
- 학교석면 모니터링은 2021년에도 모범적인 활동을 펼쳤다. 5명의 회원이 2개월간 공사현장을 15차례 방문하여 석면 해체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 교육 현장에 반영했다. 경주시의 중요한 환경시설인 ‘경주시 자원회수센터’에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쓰레기 처리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어낸 성과도 있다.
- 기후위기 대응, 생태보존, 지역사회의 굼직한 환경현안 등을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지켜내는 활동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의 사무국이 이 모든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사무국 활동가 확충을 포함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022년은 조직 운영을 더욱 정상화하고 회원 배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무국의 2인 상근 체제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400명 이상의 회원이 후원자로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모바일 소식지와 연계하여 회원 및 시민들과 더 가깝고 쉽게 소통해야 한다. 시민과 회원이 없는 환경운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회원조직 및 업무전반

□ 총평

- 회원 50명 확대를 목표로 잡았으나 회비 납부 회원이 오히려 감소. 최근 10년간 회비를 살펴보면 2020년에 처음으로 대폭 감소 후 감소 추세가 이어짐.
-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으로 재정 위기가 일정 부분 해소됨.
- 형산강 걷기 등 회원 참여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후원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였으나 활용도가 낮고, 사무국이 2인 상근에서 1인 상근으로 축소되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법적 지위 변경은 원활하게 이뤄짐.

【회원 조직】

1. 회원 현황(2021.12.31 현재)

회비 구분	회원수	회비납부 방법	회원수
5천원 이하	00명	CMS	00명
1만원	00명		
1.5만원	00명		
2만원 이상	00명	직접납부	00명
평생회원(1백만원이상/1회)	3명		
계	351명		

- 회비납부 회원 : 2021년 12월 회비납부 회원 287명(2020년 314명 대비 27명 감소)
: 1.5만원 이상 회원 00명(2020년 130명 대비 00명 감소)
- 신규가입 회원 : 00명(2020년 신규가입 회원 13명) / 탈퇴 00명
- 총회원 : 351명(2020년 348명 대비 3명 증가) / 회비납부 회원은 오히려 감소

2. 회비 현황(2021.12.31 현재)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	3,825,000	2,705,000	3,585,000	4,665,000	3,590,000	3,485,00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	3,695,000	3,425,000	3,575,000	3,445,000	3,513,000	3,835,000
*후원 및 수익금을 제외한 순수한 회비 총액: 43,343,000원						

3. 회원 모임 현황

-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독자모임, 형산강걷기, 영화감상모임, 탈핵공부모임, 업사이클링모임 등을 꾸려왔으나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형산강 걷기는 올해 정상적으로 실시.
- 후원의 밤 행사, 영화 '태양을 덮다' 극장 무료 상영 실시

4.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법적 지위 변경

- 환경운동연합은 9월 11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을 결정함.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처의 독립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함.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 '공익단체' 지위를 획득해옴.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의 해산에 따라 2022년부터 공익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못하게 됨.
- 시민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함.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여 204차 집행위원회(5.12.)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익단체' 등록을 추진하기로 함.
- 9.21.~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공익단체 등록 요건 갯춤).
- 9.30.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추천서 접수.
- 12.31. 기획재정부의 공익단체 승인(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17호).
- 2022년 2월 현재, 금융결제원과 CMS 업무 계약 추진 중. CMS 신규 승인이 완료되면 환경운동연합 중앙 MRM 계정에 등록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정보를 경주환경운동연합 독립 MRM 계정으로 이관할 계획. 회원 정보 이관 및 관리업무를 (주)휴먼소프트와 계약 체결하고 추진 중.

5.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

-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국내 최대의 민간 환경상인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의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5,000만원을 받음.
- 김익중 前상임의장도 탈핵교육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분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고 상금 500만원을 받음.

- 제2회 시상식 행사가 11월 14일(일) 오후 1시 월성원자력공원에서 개최됨.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23명이 참석했고, 총 인원 200여명이 참석한 큰 규모의 시상식 행사를 진행함.
- 대상 선정 과정에서 월성1호기 폐쇄운동 백서 출판이 큰 도움이 됨.
- 상금은 4000만원을 특별기금으로 적립하고, 1000만원을 운영비로 전환해 400만원을 '원전마을' 출판 지원, 200만원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후원, 400만원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환경상 5분 편집 영상

6. 후원의 밤 행사

- 월성1호기 백서 '핵발전소 이제 그만' 출판 및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을 기념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11월 24일 개최함.
- 회원 및 후원인 57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상 대상 수상 영상 시청 •문화공연 •월성1호기 폐쇄운동 영상 시청 •백서 이야기 등 행사를 진행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저녁 식사 대접.
- 경주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행사를 2019년 계획했으나 개최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관함. 아쉽게도 후원의 밤 행사에 창립 20주년의 내용을 담지 못했으나, 창립 20년에 걸맞은 행사를 마련함.



후원의밤 행사 영상

7. 후원금 조직

- 아래와 같이 후원함.

노영대 10만원, 민승현 10만원, 박재희 3만원, 박희순 20만원, 서토덕 100만원, 이상기 5만원, 이채근 10만원, 임배근 8만원, 윤명희 5만원, 정덕희 10만원, 정숙자 10만원, 정순태 10만원, 정창교 10만원, 조현목 10만원, 최정진 20만원, 민주노총경주지부 10만원,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20만원, 경주여성노동자회 5만원, 정의당경주시위원회 10만원, 모금함 11만5천원
=> 총 297만5천원

8. 평가

-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조직 해산 후,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법적 지위변경을 순조롭게 진행함.
- 회원 50명을 확대하여 350명 회원 회복을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감소하여 회비납부 회원이 300명 이하가 됨.
- 회비수입은 월 평균 393만 원대에서 361만 원대로 월 32만원 감소하여 2020년 대비 총 3,892,000원의 회비가 감소함. 회비 납부율은 81.7%. (2020년 회비 감소 5,085,000원, 회비 납부율 90.2%)
-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부터 회원 및 회비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 다행히 오체투지환경상 대상으로 상금 5천만원을 수상해 재정 위기를 일부 해소함.
- 총지출 구성은 인건비 51.98%, 경상운영비 9.7%, 사업비 38.3% 임. 사업비 비중이 2020년의 16.8%보다 크게 증가함. 사무국 축소에 따른 결과임.

【회의 및 사무국】

1. 총회

- 21차 정기총회를 정회원 42명(총49명) 참석하여 2월 24일 성건동 정키스에서 온라인 (줌) 병행 개최.(2020년 정회원 참가 25명)
- 참가 현황은 정회원 기준으로 행사장 15명, 온라인 5명, 서면결의서 22명 참가
- 10년지기 회원 12명, 우수활동상 8명에게 나무로 제작된 작은 감사패 증정(총회 후 우편발송)

2. 임시총회

-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경주환경운동연합을 공익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정관 변경 등 필요.
-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결의서를 제출 받아 정관 변경 추진함. 정회원 기준 37명의 회원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여 정관 변경을 승인함.

3.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은 9명이며 매월 첫 주 수요일 집행위원회 개최(2020년 9명).
- 정기 집행위원회 12차례 개최.
- 정기 집행위원회 참석률은 평균 67.5%(73/108명)로 2020년의 69.4%(75/108명)보다 낮음. 7월 집행위원회가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처리됨.

4. 사무국

- 사무국은 상근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사무차장 미채용)
-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업, 일상 업무, 재정 운영을 담당.
- 기타 회원 모임을 주관하고 소식지 발행과 SNS 운영.
- 2021년 3월 홈페이지 개설하여 운영 중.

5. 각종 위원회 참가

-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최석규)
-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이상홍)
-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이상홍)

6. 평가

- 집행위원회의 성원을 늘리고, 참석률을 높여 사업 집행력을 배가해야 함.
- 활동 일정이 481건으로 2020년의 512건보다 31건 감소.
- 탈핵 비중이 전체 일정에서 69.2%(333/481)로 2020년의 74.0%(379/512)보다 다소 낮아짐. 여전히 탈핵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사업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비탈핵 일정이 148건으로 2020년의 133건과 비슷함.
- 소식지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회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언론 보도자료, 성명, 논평 등이 11건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 대응이 부족함.(2020

년 27건) / 비환경 의제의 연대단체 성명 제외.

- 방송 출연 및 인터뷰 총 58회 진행.(2020년 62회)
- 사무국장이 KBS대구 라이브 초대석, KBS포항 라디오 시민광장, KBS대구 발캐스트, 열린공감TV 등 출연.

탈핵 사업

□ 총평

-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적극 제기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 구성을 이끌어냄. 사무국장이 현안소통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균열 및 방사능 누출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 맥스터 반대를 매개로 경주, 양남, 울산지역 대책위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출근행진 등에 꾸준히 연대를 했으며 천막농성 7주년 행사를 힘 있게 치러냄.
- 2020년 맥스터 공론화 이후 2021년 들어서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주지역의 활발한 논의 및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함.
- 고준위핵폐기물 대응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을 튼튼하게 꾸려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파타고니아의 탈핵사업 지원으로 여러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었음.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대응】

1. 현황

- 2020년 11월 중순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한수원 내부 문서인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이하 보고서)이 투서됨.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고 있음.
- 이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등이 이뤄지면서 여론화가 시작되고, 포항MBC에서 2021년 1월~3월 집중보도하면서 전국 의제로 확산됨.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근거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의 차수막 파손 8년째 방치 의혹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설치 및 철거 의혹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의 파손 및 누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민관합동 진상조사를 요구함.
- 2021년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및 [월성원

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사능 누출 조사에 착수함.

- 사무국장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민간조사단은 9월 10일 1차 보고서를 발표함.

2. 주요 사건 전개

- 2020.11.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2020.6.23.)] 입수
- 2020.12.15.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 파손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021.01.12.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 2021.01.14.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일행 월성원전 방문
- 2021.01.18.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30곳 월성원전 방문
- 2021.02.02. 경주시 조사단 활동 착수(정현걸 의장 위원 사퇴)
- 2021.02.03. 경주시 조사단 구성 반대 입장문 발표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21.03.30.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 합동 출범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 구성

- 민조조사단 구성

성명	소속	추천 학회	분야
함세영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대한지질학회	지하수·유동
고용권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방사선
김정석	조선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교수	한국비파괴검사학회	기계·재료
백 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토목학회	구조·부지
서 희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 교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
조윤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대한기계학회	기계·재료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콘크리트학회	구조·부지

*함세영 위원이 조사단장 수행 중 2021.12. 위원 사임에 따라 홍성걸 위원이 2021.1.부터 조사단장 맡음

- 현안소통협의회 구성

성명	소속	비고
김호철(의장)	법무법인 한결	원안위 비상임 위원
홍중표	나아리 이장	지역주민 대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원자력계 대표
이희석	포항가속기 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시민사회 대표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이사	

*한병섭 위원의 2021.9. 사임에 따라 2021.11.부터 흥덕화 위원이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

4. 민간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 주요 활동(사무국장 활동을 중심으로)

- 03.30. 민간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 합동 출범식
- 03.31. 월성원전 합동 현장 점검
- 04.14. 현안소통협의회 2차 회의
- 04.19.~21. 민간조사단 월성원전 매설 배관 비파괴 검사
- 05.06.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 합동회의(1차)
- 05.24.~27. 민간조사단 2차 현장조사 입회
- 05.27. 현안소통협의회 4차 회의
- 06.22. 현안소통협의회 5차 회의
- 07.02.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입회
- 07.27.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입회
- 08.10.~11.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입회
- 08.12. 현안소통협의회 6차 회의 및 합동회의(2차)
- 09.09. 현안소통협의회-합동회의(3차)
- 09.10.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 09.15.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입회
- 10.06.~07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입회
- 10.20.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입회
- 10.28. 현안소통협의회 9차 회의 및 합동회의(4차)
- 11.11.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 합동회의(5차)
- 11.17. 현안소통협회 12차 회의
- 12.03.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 합동회의(6차)

*합동회의는 현안소통협의회 개최로 같음하여 회의 차수에 적산

5. 성과

- 한수원의 내부 보고서 입수 후 방사능 누출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를 이끌어내고 적극 참여함.
- 9월 10일 1차 보고서 발표와 이후 조사활동을 통해서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의 광범위한 균열 및 누수를 확인함. 각종 매설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배관 파손 및 누설을 확인함.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벽의 에폭시의 차수 기능 없음을 이슈화. 타원전은 SFB 내벽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차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월성원전은 에폭시로 되어 있어서 차수 기능을 못함.
- 비계획적 누출 등 발전소 부지 내 방사능 누출에 대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도출함.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대응】

1. 현황

- 2020년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 맥스터 건설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나타남. 경주시는 2020년 8월 맥스터 건설을 승인함(공작물축조신고 접수). 경주, 양남, 울산 대책위는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를 공론조작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맥스터 공론화 관계자들을 고소함(2020.10.6.). 2021년 1월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
- 경주, 양남, 울산 지역대책위는 2020년 말부터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출근행진에 연대해서 맥스터 건설 중단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음.
- 시민사회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중심으로 공론화 이후에 진행될 정부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및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침. 대응의 기본 기조는 •문재인 정부 공론화 무효 및 재공론화 요구 •경주지역 공론조작 진상규명 •고준위 특별법의 임시저장 관련 조항 삭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 폐기 등

2. 맥스터 건설 중단 출근행진

- 경주, 양남, 울산지역의 맥스터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출근행진에 연대해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출근행진을 함께함. 주민 이주 요구에 맥스터 건

설 중단 요구를 결합함.

- 월성원전 앞 출근행진은 3월 첫 주까지 주2회 실시하고, 이후로 주1회 실시하고 있음.

1월	4일(월)	8:00	월성원전	남문	/	12명(경주1, 양남2, 이주4, 울산3)
1월	11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0, 양남2, 이주4, 울산3)
1월	14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1, 양남4, 이주4)
1월	18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5명(울산5)
1월	21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10명(경주2, 양남3, 이주5)
1월	25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0, 양남1, 이주5, 울산7)
1월	28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11명(경주3, 양남3, 이주5)
2월	4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7명(경주2, 양남2, 이주3)
2월	8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1명(경주0, 양남2, 이주5, 울산4)
2월	15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2명(경주0, 양남1, 이주4, 울산7)
2월	18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3, 양남5, 이주5)
2월	22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2명(경주0, 양남1, 이주9, 울산9, 서울3)
2월	25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10명(경주1, 양남4, 이주5)
3월	4일(목)	8:20	월성원전	남문	/	7명(경주1, 양남4, 이주2)
3월	8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3명(경주1, 양남3, 이주7, 울산5, 감포7)
3월	22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9명(경주1, 양남4, 이주7, 울산6, 청주1)
3월	29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6명(경주1, 양남3, 이주9, 울산3)
4월	5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3, 양남2, 이주7, 울산1)
4월	12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6명(경주1, 양남2, 이주9, 울산4)
4월	19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9명(경주2, 양남2, 이주11, 울산4)
4월	26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4명(경주1, 양남2, 이주9, 울산2)
5월	3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4명(경주1, 양남2, 이주7, 울산4)
5월	10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4명(경주1, 양남2, 이주7, 울산4)
5월	17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2명(경주1, 양남2, 이주7, 울산2)
5월	24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0명(경주1, 양남2, 이주8, 울산1)
5월	31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2명(경주1, 양남2, 이주8, 울산1)
6월	7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3명(경주6, 양남2, 이주8, 울산7)
6월	14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1, 양남2, 이주6, 울산4)
6월	21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6명(경주1, 양남2, 이주7, 울산6)
6월	28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4명(경주1, 양남2, 이주9, 울산2)
7월	5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9명(경주6, 양남2, 이주8, 울산13)

7월 12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1, 양남1, 이주9, 울산2)
7월 19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4명(경주1, 양남1, 이주9, 울산3)
7월 26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0명(경주1, 양남1, 이주7, 울산1)
8월 2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1, 양남1, 이주6, 울산1)
8월 9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5명(경주5, 양남1, 이주7, 울산12)
8월 23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1, 양남1, 이주8, 울산3)
8월 30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1명(경주1, 양남1, 이주7, 울산2)
9월 6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6명(경주4, 양남1, 이주7, 울산4)
9월 13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1, 양남1, 이주8, 울산3)
9월 27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0, 양남1, 이주7, 울산1)
10월 4일(월) 공휴일 취소
10월 11일(월) 공휴일 취소
10월 18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3명(경주3, 양남1, 이주6, 울산11, 전국2)
10월 25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2명(경주1, 양남1, 이주8, 울산1, 전국1)
11월 1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3명(경주5, 양남1, 이주6, 울산11)
11월 8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1, 양남1, 이주8, 울산3)
11월 15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3명(경주1, 양남1, 이주8, 울산3)
11월 22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1, 양남1, 이주6, 울산1)
11월 29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1, 양남1, 이주6, 울산1)
12월 6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4명(경주3, 양남0, 이주7, 울산4)
12월 13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25명(경주1, 양남1, 이주7, 울산12, 전국4)
12월 20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11명(경주1, 양남1, 이주7, 울산2)
12월 27일(월) 8:20 월성원전 남문 / 9명(경주0, 양남1, 이주7, 울산1)

3. 고준위 특별법 대응

- 현황

-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를 마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에 접어들면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이하 고준위전국회의)는 산자부의 관련 논의 테이블 제안을 거절함.
-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은 5월 17일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경주지역 시민사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주대책위원회, 양남면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짐.
- 간담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를 위한 공론화가 잘못 진행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힘.

-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통해 산자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특별법 제정 논의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것을 요청함.
- 고준위전국회의는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에 참여함. 단, 두 가지 조건을 제시 ▷산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할 것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조작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

-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진행(김성환 의원실 주최)

1차	6월 4일(금)	국회 / 의원실, 고준위전국회의
2차	6월 10일(목)	국회 / 의원실, 고준위전국회의
3차	6월 11일(금)	국회 / 의원실, 산업계
4차	6월 17일(목)	여의도 / 의원실, 고준위전국회의, 산업계, 산업부
5차	6월 25일(금)	여의도 / 의원실, 고준위전국회의, 산업계, 산업부
6차	7월 7일(수)	여의도 / 의원실, 고준위전국회의, 산업계, 산업부

- 사무국장이 고준위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입법 간담회에 참석
 - 고준위전국회의는 6차 간담회 후 김성환 의원실에 간담회 불참 통보. 김성환 의원이 특별법에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고집함에 따라 불참 결정함.
 -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개념으로 핵발전소 지역의 반대가 크고, 자칫 반영구 폐기물 저장시설이 될 수 있음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
 - 다만, 고준위특별법의 ‘독립행정위원회’ 설치 조항은 긍정적 부분임.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 독립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임.
- 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2021.9.15.)
- 고준위전국회의는 11월 22일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경주지역에서 관련 논의와 대응 활동을 펼치지 못함.

4.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고,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개최되어 행정예고 한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모든 핵발전소의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21일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이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함.

- 고준위전국회의는 12월 20일, 12월 27일 두 차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함. 사무국장이 두 차례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함.
- 기본계획에 대한 성토 및 반대 목소리가 원전지역 및 인근 지자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고준위전국회의 등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계획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음.

5. 맥스터 승인 무효 행정소송

- 2020.1.1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승인함. 이에 건설 승인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20.4.7. 시민사회는 건설 승인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 전국에서 총 833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했고, 경주지역 원고는 253명
- 2020.11.20. 1차 변론 개최
- 2
- 2021.05.28. 0차 변론(결심)
- 2021.09.24. 선고(패소)
- 2021.10.08. 항소제기

6. 맥스터 공론조작 고소

- 2020.7.2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 **맥스터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
- 2020.10.6. 경주, 양남, 울산지역의 맥스터 관련 대책위는 공론조작으로 규정하고 담당자들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10.6.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
- 2020.11.12. 이상홍 사무국장, 이재걸 양남면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여러 수사 기관으로 이첩되면서 진척 없음.
- 2021.7.20. 이상홍 사무국장, 이재걸 양남면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경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추가로 받음
- 2022년 1월 현재, 대전지검으로 이첩되어 있음.

7. 평가

- 공론화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탈핵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서 활동함. 다만,

- 경주지역 내에서 논의와 대응 활동을 충분히 조직하지 못함.
- 맥스터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재판 참관을 비롯한 모니터 및 운동적 지원 활동을 거의 펼치지 못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지원 활동】

1. 현황

- 양남면 나ारी 주민 중 72가구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8월 25부터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 시작(2021년 12월 현재 20여 가구). 후쿠시마 핵사고, 체내 삼중수소 다량 검출, 갑상선암 소송 등을 겪으면서 핵발전소 인근에서 안락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원하지만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치 폭락으로 자력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
- 핵발전소 제한구역(EAB)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이주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2. 2021년 농성장 지원

-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월성원전 앞 출근행진을 경주, 양남, 울산지역의 맥스터 대책위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관련 일정은 맥스터 대응 활동 참고)

1월 18일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농성장 방문
5월 17일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 농성장 방문
8월 27일	천막농성 7주년 행사

3. 이주대책위와 함께하는 탈핵순례

- 천막농성 3주년이 되던 2017년 9월 7일부터 경주시민에게 원전 주변 주민의 이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주 1회 탈핵 도보순례를 진행하게 됨.
- 2020년 4월 26일 100차 순례 이후 맥스터 저지 투쟁 집중을 위해 잠정 중단.
- 2021년 1월 16일 101차 순례를 재개했으나 이후 순례를 집행하지 못함. 101차 순례는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춤.

1월 16일(토) 14:00 101차 순례 / 경주역~봉황대~경주역 / 21명

4. 이주지원 법률안 국회 발의

- 8월 26일 양의원영 의원(민주당) 대표발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 발의자 명단(14명): 양의원영, 김병욱, 이학영, 윤준병, 이규민, 정청래, 전재수, 이수진(비례), 김정호, 임종성, 우원식, 용혜인, 민형배, 윤후덕.
- 주요 내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5. 천막농성 7주년 행사

- 천막농성 7주년 행사가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주’라는 제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됨
- 8월 27일(금) 오후 4시 천막농성장 개최, 70여명 참가(사회: 이상홍 사무국장).
- 양의원영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8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행사에 참가하여 주민들에게 개정법률안 내용 설명함.
- 행사 참가자들은 발전소 퇴근시간에 맞춰 본행사를 마치고 월성원전 남문으로 행진하면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다짐. 행진은 상여, 관, 드럼통, 피켓, 만장 대오로 300여 미터 이어짐.
- 그동안 행사가 휴일에 진행되어 왔으나, 퇴근길에 행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금요일 오후에 행사를 개최함.

6. 평가

- 2021년은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사회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 짐.
- 주민 이주의 법적 근거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 천막농성 7주년 행사를 힘 있게 개최하고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결의함.
-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후속 사업을 잘 마련해야 함.

[갑상선암 공동소송 지원 활동]

1. 사업 목적

-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갑상선암 피해자 권익 실현.
- 방사선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의 일상적 환경피해를 고발.

2. 소송 현황

- 2014년 10월 17일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의 1심 승소를 계기로 전국 공동소송이 진행됨
- 2014년 4개 원전지역(반경 10km)의 갑상선암 피해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5년 6월 1차 원고 모집을 마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함. 총 4차례 원고 모집을 진행하여 갑상선암 환자 618명 참여 중. 경주(월성원전) 지역 원고는 94명임(가족 포함 444명)
- 월성원전 피해자 소송 참가 현황은 양남 48명, 양북 10명, 감포 36명.
- 전국 소송 참가자 총 618명(사건번호 2014기합4056 / 김부진 외 2,881명)
- 2015년 4월 10일 1차 변론
- 2018년 3월 15일 10차 변론 이후 재판 잠정중단
: 이진섭 가족 항소심 이후 속개 방침
- 2019년 8월 14일 이진섭 가족 항소심 패소
- 2020년 4월 8일 변론 재개(11차 변론)
- 2021년 변론 없음
- 2022년 1월 12일 14차 변론(결심)

3. 2021년 주요 활동

- 2021년은 공동소송 재판이 없음
- 탈핵지역협의회에서 방사선TF를 구성해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을 학습하고 공동소송 변론서를 검토하는 등 대응 논의를 진행함

4. 평가

- 갑상선암 공동소송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펼치지 못함
- 경주지역의 원고들에게 재판 과정을 안내하고, 항소심 전략을 잘 마련해야 함

【월성1호기 폐쇄운동 백서 출판】

1. 백서 출판 배경

- 경주지역에서 펼친 월성1호기 폐쇄운동을 기록으로 잘 남겨 시민운동의 자산으로 삼기

위해 백서를 출판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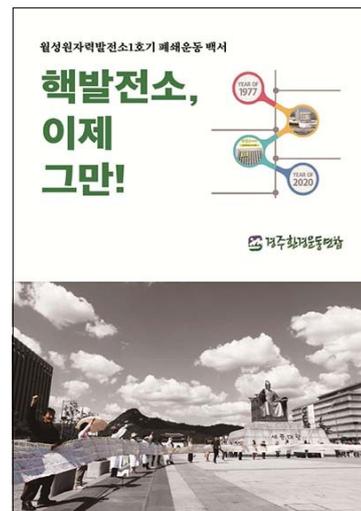
-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이후 폐쇄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월성1호기 폐쇄의 당위성이 훼손되고 시민들이 폐쇄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백서 출판을 통해 폐쇄의 정당성과 시민운동 역사를 기록함.
- 송옥규 선생이 기금을 후원하여 백서 출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함.

2. 출판 과정

- 김성대 집행위원이 20차 정기총회(2020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백서 출판 의지를 밝히고 총괄을 맡음.
- 김성대 집행위원이 백서 원고 초안을 완성한 후, 3월 2일 출판사 ‘예술과 마을’ 사무실에서 출판사 대표(김종년), 경주환경연합(정현걸, 김성대, 이상홍)이 만나 1,000만원에 출판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0만원 지급.
- 백서 제목은 여러 논의를 거쳐 ‘핵발전소, 이제 그만!’으로 확정.
- 5월 30일까지 출판 예정이었으나, 교정 작업 등이 늦어져 9월 8일 백서 1000권을 인도 받음. 교보문고 등에 출판 등록.

3. 백서 보급 및 성과

- 2021.12.31. 현재, 백서 518권 전국의 시민사회, 국회 등에 무료 배포. 약 30권 서점 판매.
- 백서 출판이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에 크게 기여함.
- 백서 출판을 계기로 ‘후원의밤’ 행사 개최함.
- 22차 정기총회 후 회원들에게 무료 배포할 계획.



【기타 탈핵 사업】

1.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도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정략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월성1호기 폐쇄가 잘못된 것처럼 발표하여 고발에 이르게 됨.
- 2020.11.12.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2020.11.26. 고발인 조사(사무국장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음)

- 2021.03.04. 참고인 조사
- 검찰의 별다른 조사 진척이 없는 상황임.

2. 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를 맞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주최로 3월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 개최함.
- 이주대책위원회, 양남면대책위도 함께해서 총 22명 참가



3. 언론 대응, 탈핵 교육 활동, 대중 행사

- 월전 관련 방송 출연 및 인터뷰 55회, 경주지역 기자회견 2회
- 탈핵 강연 활동 10회

4. 탈핵신문 배포

- 회원소식지에 삽지로 배포하고 있음. 탈핵신문 활용이 부족함.

5. 탈핵운동 전국연대

- [탈핵시민행동]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으로 참여, 사무국장이 집행위원 활동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으로 참여, 사무국장이 공동집행위원 활동
- [탈핵지역협의회]에 사무국장 참여

6. 월전안전 거버넌스

-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최석규)
-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이상홍)
-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이상홍)
- 월성원전 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민관조사협의체(이상홍)
- 월자력안전 국민참여단 전략기획단(이상홍)

생태 사업

□ 총평

-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회원 참여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으나, 2021년은 생태 탐방을 부분적으로 진행함
- 숲놀이 교실이 2021년 사업계획으로 제출됐으나 집행하지 않음
- 경주지역의 생태보존 사업이 필요함.

【생태 탐방】

1. 사업 목적

- 생태의식 함양과 회원들의 화합 증진
-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의 유대강화

2. 사업 내용

- 생태위원회 주관으로 생태탐방 신청 가족과 함께 탐방 진행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가 규모를 절반으로 줄임
- 경주시 보조금 지원 사업

탐방일	탐방지	총인원/(집행위원)
10월 30일(토)	함월산 모차골	13명 / (5명)
12월 18일(토)	기장군 아홉산숲	코로나19 취소
12월 26일(일)	대구 비슬산	9명 / (4명)

① 함월산 모차골 탐방

- 모차골 탐방은 교통이 불편해서 매번 고갯마루에서 되돌아오지만, 이번 탐방은 관광버스 지원으로 기림사까지 완주하면서 가을 숲의 다양한 풍광을 충분히 체험하는 코스로 채워짐.
- 개옷나무, 생강나무가 단풍의 절정을 달렸고 나머지 나무들은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음.

회원들은 서어나무의 굳건한 자태, 굴참나무의 수난사, 연리목, 용연폭포를 살펴보고, 불령봉표 등 모차골에 깃든 여러 역사의 흔적도 알아감.

- 회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커피, 다과, 도시락을 휴식 시간에 나누며 오랜만에 흥가분한 마음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짐. 생태탐방 만족도가 매우 높음.

② 대구 비슬산 탐방

- 비슬산은 암괴류, 토르, 애추 등이 발달해 있어서 자연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보호지역임. 그러나 달성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서 대구지역 시민사회에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음.

- 비슬산 생태탐방은 케이블카 반대운동에 연대하는 취지로 마련함.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안내를 맡아서 비슬산의 생태와 케이블카 설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함.

-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로 안경이 얼어붙고 마스크에 고드름이 맺히는 날씨에도 회원들이 즐겁게 탐방에 함께함. 다행히 바람이 없어서 햇살이 따듯했음.

- 비슬산 탐방 다음날인 12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을 내림. 즉,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됨.

문화 사업

□ 총평

-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진행하지 못했던 형산강 걷기를 더 발전된 형태로 정상화 함.
-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알바트로스 등 상시 영화 상영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기후위기 영상제와 태양을 뒀다 극장 상영회를 실시함.
- ‘함께 사는 길 독자모임’을 정상화하지 못함.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모임 정상화가 필요함.

【회원 모임】

1. 함께 사는 길 독자모임

- 환경연합 기관지인 ‘함께 사는 길’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 독자모임에서 문화위원회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집행함
- 2021년 모임을 진행하지 못함

2. 형산강 걷기

- 경주시민의 젓줄인 형산강의 생태와 경주인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문화위원회에서 형산강 걷기 시작. 2019년 4월 28일에 이르러 형산강 본류 및 지류 탐방 완료함.
- 2021년은 쓰레기 줍기를 하면서 형산강 걷기 진행

3.27(토) 10:00 / 9명 / 옥산서원 뒤편 옥산지 일원 트레킹
4.24(토) 09:30 / 10명 / 운곡서원 ~ 화산저수지
5.29(토) 09:30 / 9명 / 안계저수지 둘레길, 쓰레기 줍기
6.26(토) 09:30 / 9명 / 남천(박물관 ~ 조양동), 쓰레기 줍기
7.31(토) 09:30 / 7명 / 소현천(수운 생가 ~ 태묘), 쓰레기 줍기
*8월 형산강 걷기 없음
9.25(토) 09:30 / 5명 / 덕동댐 ~ 암곡 ~황룡, 쓰레기 줍기

*10월 형산강 걷기, 생태탐방으로 전환
11.27(토) 09:30 / 6명 / 건천 용명지, 쓰레기 줍기
*12월 형산강 걷기 없음

【문화 행사】

1. 영화 상영

*영화 상영을 위해서 성능 좋은 빔프로젝트를 추가 구입함.

① 알바트로스 상영

- 2020년 6차례 상영회를 하면서 회원들의 평가가 매우 높았음. 배급사와 협의하여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경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상영하기로 함.
- 2021년 3월~11월까지 월1회 상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진행하지 못함.

②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

- 환경운동연합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교양 사업
- 6월 19일(토) 오후 6시, 성건동 카페 정키스에서 영상 6편 상영
- 관람 11명(목표 15명에 미달), 관람객에게 음료, 김밥 제공
- 관람객의 평가는 좋았지만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다큐 내용이 어려움

③ ‘태양을 덮다’ 공동체 상영

-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일본 극영화 ‘태양을 덮다’ 상영, 문화위원회 사업으로 기획 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주최로 사업 진행
- 7월 14일(수) 롯데시네마 경주점에서 무료 상영 / 70만원 대관
- 관람 57명(목표 70명에 미달)
- 극장 상영 후 영화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음, 이에 카페 정키스 등에서 2~3회 소규모 상영을 더 하기로 했으나 진행하지 못함

생명안전 사업

□ 총평

- 학교 석면 모니터링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음.
- 학교 석면 모니터링 이외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함.
- 특히 유해화학물질 대응을 위해서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몇 년째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지 못함.

【학교 석면 교체 모니터링】

1. 사업 개요

-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 시 10년-30년의 장기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 중증 석면 질환을 일으킴.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건물 천장 마감재인 텍스 등에 널리 사용됨.
-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2017년부터 석면 교체를 실시함.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 학교가 석면에 오염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경주지역의 학교 석면 교체를 모니터링함.
- 모니터링은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교실 먼지 등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기관에 의뢰해 석면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
- 2018년 11월 9일 경주교육지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2. 2021년 겨울방학 모니터링

- 경주지역 5개 초등학교 모니터링 실시

학교	규모	담당	비교
----	----	----	----

신라초등	1,828m ²	배정한	공식 모니터링
사방초등	656m ²	주미	공식 모니터링
동방초등	510m ²	최성훈	비공식
양남초등	1,426m ²	이상홍	비공식
동천초등	510m ²	우선주	비공식

*공식/비공식: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신라초등, 사방초등을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를 환경보호실천협의회에 배정함.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배정받지 않은 학교에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모니터링 함.

- 모니터링 주간 보고서를 3차례 배포, 3월 1일 최종 보고서를 언론 배포
- 모니터링 활동

2020년 겨울방학 시작
12월 15일(화) 경주교육지원청의 석면 모니터링 교육(온라인)
12월 29일(화) 경주환경운동연합 석면 모니터단 워크숍(정키스)
2021년 겨울방학
1월 4일(월) 모니터링(동천초등)
1월 9일(토) 모니터링(동천초등)
1월 11일(월) 모니터링(신라초등)
1월 18일(월) 모니터링(동방초등, 양남초등, 신라초등, 동천초등)
1월 20일(수) 주간 모니터링 1차 보고
1월 22일(금) 모니터링(사방초등, 양남초등)
1월 23일(토) 모니터링(사방초등)
1월 25일(월) 모니터링(사방초등)
1월 27일(수) 주간 모니터링 2차 보고
1월 28일(목) 모니터링(양남초등, 신라초등)
2월 1일(월) 모니터링(사방초등)
2월 2일(화) 모니터링(양남초등)
2월 4일(목) 주간 모니터링 3차 보고
3월 1일(월) 최종 결과 보고서 언론 배포

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첨부)

2021년 겨울방학 경주지역 학교 석면 철거 모니터링 결과

"예년에 비해 석면 교체가 무난하게 잘 진행됨, 사각지대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예산 배정 필요"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경주지역 석면 철거 대상 학교인 5개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석면 철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총 5명으로 이뤄진 경주환경운동연합 모니터링단은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공사 현장을 18차례 방문하여 꼼꼼하게 석면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 예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다.

- 대상 학교가 5개 학교로 작년의 13개 학교보다 대폭 줄어서 관리 감독이 내실 있게 진행됐다. 앞으로도 5~6개 학교 내에서 석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 경주교육지청에서 학교, 업체,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직접 실시했다.
- 현장에서 모니터링단의 지적 사항을 곧바로 수용해 개선했다.
 - ： 사방초등학교는 천장 스티로폼을 폐기물 처리하고 신규 설치함.
 - ： 신라초등학교는 교실의 인테리어 가벽 철거물을 비닐 보양하여 배출함.
 - ： 동방초등학교는 불박이장을 떼서 이동함.
- 사방초등학교는 낡은 건물의 특성으로 발생한 균열 등의 틈새를 우레탄폼으로 적극적으로 메워 석면 오염을 방지했다.
- 잔재물 검사 시 청소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해서 석면 조각이 일부 발견됐으나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 모바일 소통방을 만들어서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한 학교도 있다.

■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 석면 지도에 오류가 많아서 공사 구간 내에 있는 비석면 교실이 뒤늦게 석면 교실로 밝혀져 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향후 추가적인 공사를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석면 오염 위험도 증가한다. 비석면 교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천장 단열재(스티로폼)는 석면 교체 때 폐기물 처리하고 신규 제품을 설치해야 하지만, 단열재 존재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공사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기 설비 작업자에 대한 석면 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이 꼭 필요하다. 전기 설비 해체 과정에서 비닐 보양이 훼손되거나 전기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
- 석면 공사 안내 현수막은 여전히 ‘위험성’ 공지가 부족하다. 안내 현수막에 “석면은 1군 발암물질” 등의 경고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
- 학교마다 모니터링단 예비 모임이 필요하다. 공사 현장을 사전에 살펴보면서 집기 이동, 인테리어 가벽 철거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업체-모니터단’ 간의 사전 협의를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청소 모니터링 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 공사 능력이 의심되는 업체도 있었다. 업체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교	규모	주요 지적 사항
신라초등	1,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문에 석면 공사 안내 현수막 없음 •사전청소 점검에서 인테리어 상단부 절단되지 않음 •컴퓨터실의 악세스플로어 바닥 청소 계획 없음 •잔재물 검사에서 석면 의심 조각 발견
사방초등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 스티로폼 단열재 석면 비산 우려
동방초등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함의 집기 이동 안 되어 있음 •사전청소 점검에서 인테리어 상하부 절단 안된 곳 많음 •음압기 청소 불량 •석면 공사 안내 현수막에 위험성 홍보 부족
양남초등	1,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교체에 앞서 창호 및 바닥 공사 실시 •인테리어 상단부 절단하면서 천장 석면 텍스 훼손 •비닐 보양 전반적으로 불량(테이핑 안 한 곳 많음)
동천초등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공사 안내 현수막 부족 •비닐 보양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모니터링 실시 •안전모 장갑 핀셋 비닐봉투 등 준비 안 됨 •잔재물 검사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보고서 참고

3월이면 개학을 한다. 석면을 철거한 학교들은 당분간 빗길,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밀대, 걸레 등을 사용한 물청소를 권한다. 또한 에어컨 필터의 교체도 필요하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가 석면에 노출되면 1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악성 폐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모든 건축물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고, 석면이 사용된 오래된 학교는 2027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석면 자재를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석면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경주지역의 학교 석면 교체 현장이 많이 개선되어 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2021. 3. 1.

경주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위원회

#첨부: 2021 경주지역 학교 석면 모니터링 보고서

시민참여 및 지역연대

□ 총평

- 지역 연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함.
- 시민참여위원회의 사업 대상 및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야 함(시정 및 의정 감시 등).

【지역 연대 사업】

1.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

□ 2018년 2월	경주푸른마을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 발생
□ 2018년 6월 21일	경주푸른마을 대책위 결성
□ 2019년 6월	안강 혜강행복한집 장애인 인권유린 폭로
□ 2019년 8월 5일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 변경

- 경주푸른마을 대책위로 장애인 사망 사건 대응 활동을 하던 중 혜강행복한집의 인권 유린 사건이 폭로되면서 장애인 시설 폐쇄와 자립생활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주공동투쟁단으로 재편함.
- 2021년 주요 활동
 - 국민감사청구 서명 캠페인

1월 6일(수) 14시	시내	/ 10명	/ 사무국장 참가
1월 13일(수) 14시	시내	/ 17명	/ 사무차장 참가

-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규탄 기자회견(1/26) / 참석
- 420경주공투단 경주시 국민감사청구운동 기자회견(2/3) / 참석
- 420경주공투단 9차 전체회의(3/3) / 참석
- 혜강행복한집 범죄시설 폐쇄 집중 피케팅(3/18) / 참가
- 420경주공투단 10차 전체회의(4/7) / 불참
- 2021 경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식(4/14) / 불참
- 故 최숙현 선수 사망, 경주시 대책 촉구 기자회견(4/29) / 참석
- 혜강행복한집 대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5/4) / 참석

- 420경주공투단 11차 전체회의(5/12) / 참석
- 경주시 범죄시설 박주기 행정 끝장투쟁 선포식(6/2) / 참석
- 420경주공투단 범죄시설 폐쇄 촉구 집중 선전(6/18) / 참가
- 인권유린 해강행복한집 폐쇄 천막농성(6/24) / 경주환경연합 담당
- 인권유린 해강행복한집 폐쇄 출근 선전(6/25) / 참가
- 장애인 범죄시설 폐쇄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7/6) / 참가
- 420경주공투단 12차 전체회의(7/16) / 참석
- 420경주공투단 13차 전체회의(10/6) / 불참
- 420경주공투단 14차 전체회의(11/3) / 참석
- 420경주공투단 15차 전체회의(12/1) / 불참
- 분담금 등 5만원 지원
- 참가단체: (18개 단체) 건천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겨레하나경주지회,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경주시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경주시민당(준),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경북지역지부, 노동당경주시당, 민주노총경주시지부, 민중당경주시역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참소리시민모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2. 경주시내버스대책위

- 2018년 10월 19일 대책위 결성
- 2018년 12월 1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접수
- 2019년 10월 감사원 감사 보고서 공개

-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의혹이 일면서 투명한 회계 공개와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책위 결성
- 2021년 주요 활동
 - 시내버스대책위 회의(2/22) / 참석
 -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회 조례안’ 의견서 제출(2/23) / 사무국장
 - 시내버스대책위 회의(3/2) / 참석
 - 주낙영 경주시장 면담(3/4) / 참석
 - 경주시교통행정과 면담(5/4) / 참석
 - 시내버스대책위 회의(5/11) / 참석
-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3.26) 및 대책위 위

원 다수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

- 참가단체: (10개 단체) 경주시민총회, 공공운순노조새천년미소지회, 건천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적인당원협의회,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한국노총경주지부

3. 경주평화연대

□ 2019년 2월 25일 경주평화연대(준) 발족

-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경주지역의 평화운동 지평을 넓히기 위해 경주평화연대(준) 발족
- 2021년 주요 활동
 - 자주평화선언 행사(7/25) / 참가
 - 제6회 통일퀴즈대회(11/20) / 참가
- 분담금 등 5만원 지원
- 참가단체: 경주겨레하나,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시민포럼 더나은경주, 진보당경주시위원회, 천도교 경주한울연대

4. 기타 지역연대 활동(행사 중심)

-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6/2) / 경주대학교
- 경주대-서라벌대 공영형사립대 추진 기자회견(7/27) / 시청
- 경주대-서라벌대 공영형사립대 시민추진위원회, 주낙영 시장 면담(8/5) / 시청
- 시내버스노조 시청 앞 출근선전 연대(12/7) / 시청
- 시내버스노조 시청 앞 출근선전 연대(12/16) / 시청

현안 사업

□ 총평

- 경주소각장의 폐수 무단 방류를 적극 이슈화하여 행정조치까지 이끌어냄. 그러나 폐수 처리설비 정상화 등의 과제를 이루지 못함.
- 지역의 환경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 주민들이 제보하는 환경 민원에 적절히 대응함.

【경주시 소각장 폐수 방류】

- 천군동의 쓰레기 매립장에 건립된 ‘경주시 자원회수센터’(이하 경주소각장)에서 폐수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제보를 접수(9.10.)하고 현장조사 및 기자회견 등 대응 중.
- 9월 17일, 10월 6일 두 차례 경주소각장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자회견 등 개최함.
: 경주소각장은 하루 약 40톤 발생하는 전량 자체 정화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인허가를 받음. 그러나 실제로는 처리시설의 잦은 고장 등으로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된 것으로 확인됨. 당연히 폐수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인근 오수관로로 전량 배출하여 왔음.
- 10월 14일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0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폐수 무단 방류를 고발함.

경주시 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처벌 및 위탁운영 해지 등 정상화 요구

2021년 10월 14일(목) 14시  경주환경운동연합

- 포항M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경주소각장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됨.
-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고발 건을 이관 받은 경상북도는 10월 25일 경주소각장 현장 점검을 실시 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과태료 60만원, •폐수배출시설 운영일

지 미작성에 과태료 100만원, •폐수처리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은 사법처리함.

- 경주소각장은 폐수 처리대책으로 정화처리를 중단하고 전량 위탁처리(외부 반출)하는 것으로 공정 변경함. 공정 변경에 대해 경주시 11월 24일 변경승인, 경상북도 12월 16일 변경 신고증 발급.

변경전	변경후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
청소, 세차, 조경수, 바닥재 냉각수 활용	바닥재 냉각수 활용
비상시 오수배관 방류	비상시 위탁처리

*물리적 처리만 하는 것은 각 가정의 정화조와 같은 것으로 폐수 정화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당연히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탁처리하여 반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 경주소각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울산 분원)에 카드뮴, 크롬, 납 3종을 분석의뢰 했으나 다행히 기준치 이내로 나타남. 경주소각장이 장기간 가동을 하지 않은 것도 수치가 낮은 원인으로 보임.
- 경주시의 잘못된 소각장 운영을 바로잡는 과제가 놓여 있으나, 첫 문제제기 이후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음. 경주소각장의 폐수처리 설비를 정상화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철회하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해야 함.

【내남면 박달4리 풍력,태양광 반대】

- 2016년 봄부터 4년째 주민들이 대규모 풍력, 태양광을 반대하고 있음. 청정지역인 박달리의 해발 500미터의 산 정상부근에 조성되는 대규모 발전시설이 미칠 환경 변화와 농업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 2018년 처음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대책위의 각종 사업에 연대함.
-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음.
- 지원 활동
 - 2021년 지원활동 없음

【건천읍 송선리 석산개발 반대】

- 1983년부터 송선리 마을에 채석장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봄. 주민들은 2017년부터 시청 앞 집회 등 본격적인 석산개발 반대 운동을 펼침.

-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석산개발의 불법성이 드러났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성이 다시 한번 드러남.
- 2019년 '경주 민생민권 대표자회의' 차원에서 현장방문, 기자회견 등 개최
- 지원 활동
 - 2021년 지원활동 없음

【기타 환경 민원】

1. 외동읍 석계리 신원산업 악취 민원

- 5월 21일, 금속 폐기물 정련 공장인 신원산업 주변의 주민들의 악취 민원 접수, 경주시에 전화로 해결을 요청함.
- 5월 31일, 신원산업은 경주시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 7월 1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받음.

2. 감포읍 호동리 축사 민원

- 마을 입구의 축사 때문에 고통을 받아오던 주민이 축사에서 분뇨 폐기물을 하천으로 불법 투기한 사실을 제보함.
- 9월 13일 현장조사를 실시해 분뇨를 불법 투기한 사실을 확인함.
- 9월 14일 경주시 환경과에 행정조치를 요구함.
- 9월 28일 경주시는 해당 축사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림.

3. 안강읍 도로포장 비산먼지 민원

- 12월 1일, 안강읍 중앙도로 확장 포장에 따른 비산먼지 민원 접수.
- 12월 4일 현장조사를 실시해 비산먼지의 심각성을 확인함.
- 12월 7일 경주시에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문 접수.
- 12월 15일 경주시에서 공사현장에 살수차 배치 및 부직포 설치함.

환경운동연합 활동

□ 총평

- 환경운동연합 중앙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펼쳐옴.

1. 대표자회의 / 반기별 1회

- 총 4회 개최된 대표자회의에 3회 참석
 - : 2021-임시 대표자회의(2/16), 온라인 Zoom회의 / 불참
 - : 2021-1차 대표자회의(2/27), 온라인 Zoom회의 / 참석
 - : 2021-임시 대표자회의(5/1), 온라인 Zoom회의 / 참석
 - : 2021-임시 대표자회의(9/4), 온라인 Zoom회의 / 참석

2. 대의원대회 / 연 1회

- 2021 전국대의원대회(2/27) 온라인 투표로 진행 / 대의원 00명 참여
- 2021 임시 전국대의원대회(9/11) 온라인 투표로 진행 / 대의원 00명 참여

3.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 격월 개최

- 총 6회 개최된 회의에 4회 참석
 - : 2021-1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1/14), 온라인 Zoom회의 / 참여
 - : 2021-2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3/11),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여
 - : 2021-3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5/13), 온라인 Zoom회의 / 참여
 - : 2021-4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7/8), 온라인 Zoom회의 / 참여
 - : 2021-5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9/9), 온라인 Zoom회의 / 불참
 - : 2021-6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11/11), 온라인 Zoom회의 / 불참

4. 조직위원회 / 격월 개최

- 2019.3. ~ 2021.2. 사무국장이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대구경북지역 담당)으로 활동.
 - : 2021-1차 조직위원회(2/3), 서울 환경운동연합 / 참석

5. 탈핵위원회

- 총 4회 개최된 회의에 3회 참석
 - : 2021-1차 탈핵위원회, 3.19(금) 온라인 Zoom회의 / 참여
 - : 2021-2차 탈핵위원회, 5.21(금) 온라인 Zoom회의 / 참여
 - : 2021-3차 탈핵위원회, 7.26(월) 온라인 Zoom회의 / 참여
 - : 2021-4차 탈핵위원회, 9.10(금) 온라인 Zoom회의 / 불참

6. 대구경북광역협의회 / 격월 개최

- 대구경북지역 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들의 협의체
- 총 2회 진행된 협의회에 모두 참석
 - : 3월 29일(대구), 12월 4일(포항)

7. 교육 연수 참여

- 환경운동연합 사업장 폐기물 내부 간담회(4/29) 온라인 Zoom회의
- 환경운동연합 대선과제 정책 워크숍(9/1) 온라인 Zoom회의
- 환경운동연합 회원관리프로그램 이관 교육(11/18) 온라인 Zoom회의
- 환경운동연합 회계 교육(12/2) 프란치스코 교육회관